제 10 장 고전 유가의 철학

1. 공자, 동양의 인문학의 시작과 그 한계

1) 공자(孔子, BC551-BC479)는 '다툼[爭]'의 현실을 다투지 않음, 즉 '부쟁(不爭)'으로 바꾸려고 하였다.

> ◇ "군자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다투지 않는다 (君子矜而不爭)."(『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

→ 모든 다툼은 지나친 자긍심을 가진 개인들이 만났을 때 생기는 법이다. 공자는 인간이라면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투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군자(君子)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인과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

> ◇ 공자가 말했다. "그만두자! 나는 아직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내면에서 그것에 대해 재판을 여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子曰, "已矣乎! 吾未見能見其過而內自訟者也.")"(『論語』「공야장(公冶長)」)

→ 결국 공자는 외면에서의 다툼과 갈등을 내면으로 이행시키는 교묘한 내성(內省)의 방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자신이 피의자, 검사, 변호사, 그리고 판사까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자기 분열의 윤리론은 바로 여기서 출현하는 것이다. 내면적 법정을 지배하는 법률, 즉 초자아는 바로 공자의 예(禮)였다.

2) 공자는 타인과 적절히 관계하기 위해서 서(恕)라는 윤리적 명령을 강조한다.

> ◇ "오직 인한 사람만이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唯仁者能好人, 能惡人)."(『論語』「이인(里仁)」)

→ 내면에 재판을 열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공자는 인자(仁者)라고 규정한다. 물론 이 인자는 **군자와 같은 의미다.** 공자가 강조했던 극기복례(克己復禮)(『論語』「안연(顔淵)」)의 의미는 바로 재판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예라는 법률을 따르려는 자기검열의 공부였던 셈이다.

> ◇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은 남에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 (己所不欲, 勿施於人)."(『論語』「衛靈公」)

→ 공자가 최초의 중국 철학자로 불리는 이유는 그가 타자를 발견했고 숙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의지를 기준으로 타자와 관계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서(恕)의 윤리학이다. 중요한 것은 타자를 만났을 때, 공자는 자신의 욕망과 의지를 성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의 윤리학이 성공하려면, 타자의 욕망과 의지는 나와 동일한 것으로 상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장자는 바로 이런 공자의 유아론적 측면을 공격한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윤리학은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자의 두 후예, 맹자(孟子)와 순자(荀子)

1) 맹자, 측은지심을 발견하다.

◇ "지금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장차 우물에 빠지는 상황을 당하게 되면, 모두 깜짝 놀라고 측은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으려고 해서도 아니고, 지역사회의 친구들에게서 칭찬을 바라서도 아니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 싫어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관찰한다면,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해하는 마음은 인(仁)의 단서이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단서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의 단서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智)의 단서이다.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仁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孟子』「公孫丑·上」)"

→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마음, 즉 윤리적 마음이 존재한다. 맹자(孟子, BC372?-BC289?)에 따르면 그것은 측은지심, 시비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이란 네 가지 마음이다. 그는 그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으로부터 출현한다고 논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맹자의 성선설이다.
→ 흥미로운 것은 공자에게 있어 학습해야 할 외적인 규범이었던 예(禮)마저도 맹자에게서는 내면의 마음과 관련지어 있다는 점이다. 훗날 이런 경향은 왕수인(王守仁)의 양명학(陽明學), 즉 심학(心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2) 순자, 예(禮)의 외재성을 다시 회복하다.

◇ "본성이란 하늘이 부여한 것이니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예의(禮義)란 성인이 만들어낸 것으로 사람들이 배워서 할 수 있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배워서 될 수 없고,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것으로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본성[性]'이라 하고, 배워서 할 수 있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인간에게 있는 것을 '인위[僞]'라고 한다. 이것이 본성과 인위의 구별이다. (凡性者, 天之就也, 不可學, 不可事. 禮義者, 聖人之所生也, 人之所學而能, 所事而成者也. 不可學, 不可事而在人者, 謂之性, 可學而能, 可事而成之在人者, 謂之僞, 是性僞之分也『荀子』「性惡」)."

→ 순자(荀子, BC298?-BC238?)에게서 본성[性]이 선천적 자질이라면, 인위[僞]는 후천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순자는 본성을 자연적으로 주어진 능력으로 이해하고, 본성에는 맹자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도덕적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이것이 바로 순자가 말한 성악설(性惡說)의 취지이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해질 수 있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노력하여 배울 수 있는 능력, 즉 인위[僞]라는 것이 있고, 동시에 인간들을 윤리적으로 이끌 수 있는 외재적인 규범, 즉 예의(禮義)가 존재하기 때문이다.